



# 질 의 응 답

# Q A



모든 2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소규모 양돈농가입니다. 번식성적을 좀 더 높이려니 모돈의 발정재귀일수가 문제가 되는군요. 발정재귀일수를 최대한으로 단축시켜 모돈 회전율을 높이고 번식성적을 향상시켜서 생산원가를 줄이려고 합니다.

발정재귀일수를 단축시키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 보령군 웅천면 김길웅)



양돈경영에 있어서 번식성적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과제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양돈경기가 불확실할 때일수록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번식돈의 산자수, 육성율(복당 육성두수), 분만횟수(모돈 회전율) 등은 모돈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분만횟수(모돈회전율)를 높이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모돈 회전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유 후 발정재귀일수를 단축시켜야 합니다.

발정재귀일은 포유자돈수, 포유기간, 이유모돈의 영양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일에서 14일 사이에 발정이 오며 평균 발정재귀일은 7일이며 10일 이내에 이유모돈의 90% 이상이 발정이 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발정재귀일수를 단축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1. 분만전 체중과 발정재귀일수와의 관계.

초산돈은 체중이 작고 아직 발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만후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발정재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20kg 이상 충분히 발육시킨 후 번식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분만전 체중이 클수록 발정재귀일수가 단축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초산돈의 처음 교배는 8개월령 이상에서 120kg 이상 되었을 때이며, 분만전 체중으로는 20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즈음 많이 사육되고 있는 랜드레이스, 라지 화이트 모돈(母豚)에서는 초산돈의 교배를 8~9개월령에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산돈을 무턱대고 너무 늦게 교배시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초산돈을 13개월령 이상 늦추게 되면 불임돈이 되기 쉽고 산자수가 적어지며 비유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분만전 너무 과비하게 되면 난산이나 산욕열(産褥熱)을 일으키기 쉽고 발정재귀가 늦어지게 됩니다.

## 2. 체중 감소율과 발정재귀일수와의 관계.

수유모돈(授乳母豚)의 체중 감소량이 많을수록 비유량도 많고 자돈의 발육도 좋아집니다. 또한 자돈수가 많을수록 체중감소가 큼니다.

체중 감소율은 이유할 때 체중이 분만전 체중

“

**분만후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발정재귀가 늦어지게 되므로 초산돈의  
처음 교배는 8개월령 이상에서 120kg 이상  
충분히 발육되었을때 번식에 이용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의 80%로 하고, 포유중에 체중 감소율은 20% 이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체중이 30~40%까지 감소하게 되면 분명히 영양부족으로 발정이 오지 않거나 늦어지게 됩니다. 체중 감소율이 많아지면 발정재귀가 늦어지고 감소율이 20% 이내에서는 발정재귀도 빨라지며 안정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산돈은 분만전 체중을 200kg, 흉위 130cm(랜드레이스 기준), 이유시의 체중을 160kg, 흉위 120cm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경산돈은 분만 전 체중을 220kg, 흉위 135cm(랜드레이스 기준), 이유시 체중을 176kg, 흉위 125cm 정도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사료급여량도 모돈의 발정재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8~10두를 포육시킬때는 하루에 5kg 정도 급여하고 10두 이상 포육시킬때는 하루에 5.5~6.0kg 정도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산차와 발정재귀일수와의 관계

대개 초산을 하고 이유하였을 때는 발정재귀가 늦어지고 2산 이후 부터는 발정재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육모돈의 갱신을 한꺼번에 실시할 경우에는 초산돈의 비율이 많아져서 산자수

와 육성수가 떨어지고 분만회전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갱신율은 3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종돈장의 향상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4. 계절과 발정재귀일수와의 관계

발정재귀는 계절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큰 차이는 없으나 여름철(6, 7, 8월)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모돈이 더위에 따른 체온조절 기능이 나빠져서 호르몬 분비가 정상을 벗어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돈이 더위에 견디기 좋게 그늘을 만들어 주거나 물을 뿌려주어 신선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돈 회전율은 평균 2.0~2.2회전 정도인데 앞으로 무발정, 유산, 수태불량 등 여러가지 공태요인을 제거하고 발정재귀일수를 단축시키는 등 세심한 개체관리를 한다면 그 이상의 번식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구에 닥칠지도 모를 불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한 노력으로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습니다

(응답자 : 본회 홍보부 최승덕)